



- 특집 1 \_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재외동포와 야심차게 추진
- 특집 2 \_ [지상중계] '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
- 특집 3 \_ '2024 코리안 페스티벌' 성황
- 기획 \_ 윤석열 대통령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
- 이슈 & 화제 \_ 타국서 인종차별·정체성 혼란 극복... '희망의 상징' 입양한인들



#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계기 ‘동포청-재외동포’,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하고 인류의 공동번영 주역 되자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맞아 해양수산부 장관 출신으로 감회가 남다르다.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담기구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으로 설립됐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1년간 동포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비롯해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국내 인식 개선 기반을 조성하는 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한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재외동포 교류·협력 추진이 눈에 띈다. 미국에서 첫 해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내 기업 해외 진출 및 판로 확대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다. 또 국내 중소기업에게 해외 비즈니스 노하우와 자문 등을 제공하고,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지원, ‘세계한인회장대회’ 등 다양한 교류와 협력 행사 개최를 통해,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에 힘써 왔다.

재외동포청을 비롯해 ‘한상’들의 피나는 노력과 영화, 드라마, 음악 등 한류영향으로 대한민국은 과거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유럽 평균 수준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가 됐다.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 발전은 전례가 없는 만큼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해양영토’를 개척한 사람은 장보고다. 장보고는 당나라와 신라, 일본 간 해상무역을 주도하며 동북아에 평화로운 해상무역의 장을 펼쳤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재단 등과



이주영  
세계도덕재무장(MRA)  
한국본부 총재(전 해양수산부 장관)

함께 2006년부터 장보고 대사의 정신을 계승한 후예들에게 ‘장보고대상’을 수여해왔다.

그 후예가 바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늘날의 ‘한상’, 즉 세계한인경제인들이다.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는 전 세계 68개국에 143개 지회를 두고 7600명 회원과 2만 8000명의 차세대 회원을 두고 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데는 700만 재외동포들이 크게 기여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재외동포들이 각자가 진출한 나라에서 주류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힘껏 도와줘야 한다. 또 성공한 동포 기업인들도 한국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줘서 공동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를 실현하고 인류의 공동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지난 5월 러시아 사할린동포 60명이 재외동포청 주관으로 영주 귀국했다. 사할린 동포는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 등으로 고통을 겪었고, 이번에 조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재외동포청은 이들과 동반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사할린동포뿐만 아니라 원폭피해자나 파독근로자, 고려인 동포, 해외 입양 동포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재외동포들의 초청사업도 폭넓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또한 사할린동포들처럼 2세 3세들이 희망할 경우 모국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재외동포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저출산에 따른 국가소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한 축이기도 하다. [▶](#)





- 02 창을 열며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계기 '동포청-재외동포',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하고 인류의 공동번영 주역 되자  
이주영 세계도덕재무장(MRA) 한국본부 총재(전 해양수산부 장관)
- 04 특집 1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재외동포와 아심차게 추진
- 06 특집 2 [지상중계] '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
- 10 특집 3 '2024 코리안 페스티벌' 성황
- 12 기획 윤석열 대통령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
- 14 이슈 & 화제 타국서 인종차별·정체성 혼란 극복... '희망의 상징' 입양한인들
- 16 인터뷰 81년만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정태식씨 "재외동포청에 감사"  
"재외동포청 청년인턴십으로 취업 뚫었죠...해외 실무경험이 최대 장점"  
문시연 세계한류학회장 "한류 확산서 타문화 교류 중요"
- 18 지구촌 통산원 한국계 첫 미국 상원의원에 성금 다가선 앤디김, 뉴저지주 민주당 후보로 확정
- 20 뉴스속으로 한국계 디자이너 2명, 미국 토니상 의상상·조명상 쾌거 외
- 22 OKA 뉴스 재외동포청장, 인천보훈병원 찾아 국가유공자 위로 외
- 24 동포 캘린더 아시아 한인회·한상, 10~13일 말레이서 '교류 확대' 논의 외
- 25 기고문 재외동포 위해 애쓰는 '동포청'에 깊은 감사  
1500개 한글학교에 실질적 도움 되도록 지원 기대  
이장석 유럽한글학교협의회회장
- 26 재외동포청 공지 재외동포청, '2024년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6월30일까지

발행인: 이기철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32-585-3100,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의 발전상 알리기 재외동포와 야심차게 추진

## 원폭 피해·사할린·고려인 동포 등 참석... '동포와의 대화' 개최

**재**외동포청이 5일 출범 1주년을 맞아 인천 연수구 본청 4층 대강당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재외동포와의 대화' 행사를 열었다.

70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 집행을 총괄하는 동포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외교부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신설됐다.

이기철 청장은 인사말에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더욱 성장하고,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 효과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출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축사를 통해 "35년 외교관 생활 중 주밴쿠버한국총영사 시절 2년간 동포사회와 같이 일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며 "동포청이 동포들과 커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백윤정 대통령실 국민공감비서관실 행정관,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김봉규·이구홍·김경근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장,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등도 참석했다.

특히 지난달 경기 안산시에 정착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중 최고령인 정태식(91) 씨가 가족과 함께 화상으로 행사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정씨는 자신이 지은 '사할린 아리랑'을 직접 불렀다.

본 행사에서 이 청장은 '재문청답'(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 자리를 마련해 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국내 인식 개선 기반 조성, 취약 동포 보듬기 등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장,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 등 재외동포들은 민생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동포청에 다양한 제안을 전달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투하 피해 동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모국으로 초청한 것에 감명받았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이 청장은 앞으로도 소외돼온 동포를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



6월 5일 인천 연수구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에서 이기철(오른쪽서 일곱 번째) 재외동포청장과 재외동포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6월 5일 인천 연수구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 '재외동포와 대화'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했다.

사할린 동포가 영주귀국 과정에서 겪는 법적·행정적인 어려움을 전하자 이 청장은 “사할린동포법을 개정해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 동포의 모든 자녀로 확대했다. 국내 정착 시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한 행사 참석자가 국내 청년들이 동포 기업에서 인턴ships 할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하자 이 청장은 “국내 대학과 동포 기업을 연결해 서로 도움이 되는 인턴ships 개발하고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기철 청장 “복수국적 55세 이하 허용 바람직...연구중”

그간 동포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이 청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재외동포 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달 중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

현행(65세) 및 하향 연령(55세, 45세, 40세 등)별로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국내 유입 규모 파악,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도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이 청장은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사업 등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 지원 및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적극 추진하고, 교과서 출판사들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재문정답’이라는 기획도 돋보였지만, 이기철 청장이 1시간여 진행된 답변시간 내내 서서 재외동포들의 궁금증을 성심성의로 자세하게 설명해 인상 깊었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 '재외동포와 대화'에 현장에 참가한 재외동포 및 정·관계 참가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한 재외동포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 [지상중계] '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

“따뜻한 보듬기 · 민생 도움 · 손톱 밑 가시 빼주고 파급효과 큰 정책 추진할 것”  
“국적회복 신청 후 심사 결정 나올 때까지 6개월 동안 국내에 체류할 필요 없어”

재외동포청은 6월 5일 인천광역시 송도에 있는 본청에서 출범 1년을 기념하는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재외동포와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재외동포와의 대화는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재외동포들 민생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국내외 동포 8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고, 김건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대화에는 지난 5월 경기도 안산에 정착한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 중 최고령 정태식(91) 어르신

이 가족과 함께 화상으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사할린 동포들의 영주귀국을 지원하다가 뒤늦게 고국 땅을 밟은 정태식 어르신과 가족은 자신이 지은 '사할린 아리랑'을 직접 불러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이기철 청장은 '재문청답'(재외동포가 묻고, 재외동포청장이 답하다)에서 1년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재외동포들은 민생 현장에서 직접 겪은 어려움을 토로했고 청장은 어떻게 바꾸었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도 대답해 동포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동포청이 추진하고 있는 4가지 주요 정책들로 구성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보듬기 정책, 두 번째는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 세 번째는 손톱 밑 가시를 빼 드리는 정책, 네 번째는 근본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이다

## 따뜻한 보듬기 정책

먼저, 따뜻한 보듬기 정책부터 질문을 받기로 했다.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을 대표해 권준오 한국원폭피해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섰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고국에 초청해 보살펴 준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듬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청장은 “지난해 추석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많은 위로를 받은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말문을 연 뒤 오랜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 차세대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준 원폭 피해 동포들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했다.

이 청장은 이어 “지난해 윤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제’에 참석하셨다”면서 “대통령께서 그 때 나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이 청장은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부는 원폭 피해 동포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위로는 이 자리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보고 재외동포청장이 내년에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령제에 반드시 참석하라는 지시를 하셨다. 저는 대통령의 이 말씀이 바로 권 위원장님께서 원폭 피해자들을 보듬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폭 피해 동포 등 소외되어 온 동포를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이라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제’에 직접 참석해 원폭 피해 동포의 아픔을 보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원폭 피해 동포 뿐만 아니라 고려인 동포, 사할린 동포, 파독 광부·간호사 동포 등 소외된 동포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김 한인회 임흥순 전임 회장은 지난해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을 상기하면서 해외에서 위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동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과거에는 해외위난 발생 시 재외국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왔지만,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하며, “동포청은 이를 위해 생필품 지원금 예산을 확보하고 근거지침을 제정했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작년 7월 대한적십자사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은 위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동포들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밀고, 국적과 무관하게 지원을 함으로써 ‘아~~조국이 내 곁에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5월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로 고령인 정태식 씨를 대신해 아들 정정우씨가 질문자로 나섰다. 정 씨는 사할린동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면서 귀국 과정에서 겪는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사할린동포의 영주 귀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청장은 “‘사할린동포법’ 개정(2024.7.17. 시



1



2

1.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6월 5일 인천 연수구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 ‘재외동포와 대화’에서 온라인으로 참가한 재외동포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 ‘재외동포와 대화’에 온라인으로 참가한 31명의 세계 각국 재외동포들.



1.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6월 5일 인천 연수구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 이기철(왼쪽) 재외동포청장이 6월 5일 인천 연수구 송도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념 '재외동포와 대화'에서 재외동포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3.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 '재외동포와 대화'에 온라인으로 참가한 한 재외동포가 이기철 청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행)을 통해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동포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고,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관계 등록 등 국내 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 청장은 "역사적 아픔을 겪은 사할린 동포들이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하면서 더욱 많은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 귀국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사할린 현지에서 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영주귀국을 위해 헌신하신 정태식 어르신께 감사를 표했다. 질문을 마친 뒤 정태식 씨와 그의 아들 며느리는 정 씨가 작사한 '사할린 아리랑'을 불러 참석자들을 숙연케 했다.

이어 현장에 참석한 권경석 전국사할린귀국동포연합회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권 회장은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 귀국한 후 그 자녀들이 귀국했을 때 기존의 귀국한 가족과 가족관계가 연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또 이름과 생년월일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동포들이 나이가 많아 한국의 법과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동포청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지적한 문제점은 잘 알고 있다"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개선하는 문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국내 동포를 위한 교육 및 장학 프로그램 확대 요청에 대해서, 이 청장은 "국내 체류 동포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동포들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부

정적 인식 개선 요청에는 "국내 교과서에 재외동포와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

이 청장은 "국내 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기회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2024년 정부혁신 추진방향의 하나인 '청년 등 미래세대를 맞춤형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해외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사업 외에도 국내 대학과 동포 기업을 연결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인턴십을 개발·확대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내 중소기업 대표의 해외 진출 지원 요청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국내외에서 순환 개최하고,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상설 사무국'과 온라인 플랫폼을 설치하여 동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하며, ▲해외 비즈니스에 대한 노하우와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손톱 밑 가시를 빼 드리는 정책

오랜 기간 불편했던 '손톱 밑 가시'를 지적하는 동포들도 있었다. 해외 거주 중인 동포들이 국내의 일반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인증을 위한 국내 휴대전화 회선 등이 없어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에 이 청장은 "재외국민이 한국 휴대전화와 국내 계좌가 없이도 여권정보를 기반으로 본인인증을 받아서 국내의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적회복 심사기간이 6개월 이상에 달하며, 심사기간 국내 체류하는 경우 생계, 거주 등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 이 청장은 "국적회복 신청 후 심사 결정이 나올 때까지 6개월 전체기간 동안 반드시 국내에 체류할 필요는 없으며, 국적회복 허가 결정 시점에는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관련제도를 설명했다.

또한, 국적회복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수한 동포의



2

국내 유입과 인구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적회복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동포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내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법무부,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이라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로 진출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이 청장은 “복수국적 제도로 인해 병역 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 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와 설명을 강화하고,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국적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적극 의견을 개진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사업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부처에 재외동포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하여 복수국적 제도 개선을 위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가 최근 재외동포들이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동포들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모국에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했다는 사례도 언급되었다.

### 근본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정책

재외동포 교육 현장에서는 차세대 동포들의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한 맞춤형 교육자료 지원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 청장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제작을 적극 추진하고, 교과서 출판사들과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한글학교 교육현장에서 풍부한 자료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동포사회, 외교부와 협업해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차세대 동포는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거주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 우리 동포가 주류사회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등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지난 1년 간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사회의 대변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정책 효과가 재외동포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



3

## ‘2024 코리안 페스티벌’ 성황

god 박준형 · 김태우 사회로 가수 정미조 · 이무진, 배우 정선아 등 출연  
이기철 청장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유대감 강화 계기 되길”

**전** 세계 자랑스러운 700만 재외 동포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울타리인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을 맞아, 재외 동포와 내국인이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특별 공연 프로그램 ‘2024 코리안 페스티벌’이 6월 8일 KBS 1TV에서 전 세계로 중계됐다.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KBS가 주관한 ‘2024 코리안 페스티벌’은 ‘재외동포청’ 개청 1주년을 축하하고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선물하기 위해 개최한 뜻 깊은 공연이었다. 이번 페스티벌은 재외동포청의 미션과 비전,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재외동포를 이야기하는 음악공연 형식의 무대로 꾸며졌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사전 제작한 영상을 통해 “재외동포청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재외동포의 보호 및 지원,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 했다.

이 청장은 이어 “자랑스러운 과거 70년간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을 차세대 재외동포들에게 교육하고 외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재외동포들과 함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문턱 낮고 소통하는 재외동포청,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청, 민생과 현장을 챙기는 재외동포청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이 청장은 끝으로 “이번 페스티벌은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기념해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면서 “우리 국민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재외동포와의 유대감 강화뿐 아니라, 재외동포청의 활동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쇼카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와 뮤지컬계의 디바 배우 정선아가 ‘아름다운 나라’를 합창하고 있다.

‘2024 코리안 페스티벌’은 god의 만형인 박준형과 막내 김태우가 MC로 참여했다. 데뷔 25년 만에 첫 MC 호흡을 맞추게 된 두 사람은 녹화 내내 환상의 티키타카를 선보이며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특히 김태우는 박준형의 갑작스러운 돌발 멘트에 당황하면서도 이내 바로 안정적으로 진행을 이어가는 등 MC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미국에 이민한 후 20년 이상 재외동포로 거주했던 박준형은 실제로 재외동포들에게 ‘덕분에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의 DM을 많이 받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박준형의 솔직한 경험담과 진심을 담은 응원문은 현장의 많은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번 ‘2024 코리안 페스티벌’은 남녀 20명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 쇼카이어 그룹 ‘하모나이즈’의 화려한 무대로 출발했다. 하모나이즈가 부른 첫곡 ‘라라라’는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노랫말이지만, 재외동포와 재외동포청의 관계를 상징하는 노래로도 들리기에 충분히 공감을 얻었다.

공연 내내 약 1천명의 관객들은 시시각각 색깔이 바뀌는 손전등을 흔들며



'안녕, 인사해'를 열창하고 있는 cignature(시그니처).

때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율동을 하며 더욱 흥겨운 자리를 연출했다.

그룹 EPEX(이펙스)가 'Breathe in Love'를 열창하자 객석을 압도하며 호평을 받았고, cignature(시그니처)가 '안녕, 인사해'를 불러 흥을 돋웠다. 시그니처의 클로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미시건대학에 재학 중 휴학을 하고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하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클로이는 미국 생활 중 K팝 붐이 일어나면서 K뷰티, K패션에 이르기까지 한류열풍이 불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친구들이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프랑스 이민 후 40여년만에 가요계로 복귀해 활동 중인 재외동포 가수 정미조는 '개여울'과 '엄마의 봄'을 불러 고향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이화여대 서양화학을 졸업한 정미조는 1972년 가수로 데뷔했으나 1979년에 은퇴를 선언하고 프랑스 파리로 미술 공부를 위해 유학을 갔다. 그는 1980년대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10개 반을 두고 있는 데도 한국어를 공부하려고 새벽부터 줄을 설 정도로 열기가 대단

하다고 전해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올해 초 영국에서 베스트 뮤직 비디오 상을 수상한 밴드 카디(KARD)는 '7000RPM'과 'Pearl'을 선사해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이어 싱어송라이터 이무진이 '청춘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와 '에피소드'를 열창해 화려한 축하 무대를 선보였다.

마지막 무대는 뮤지컬계의 디바 배우 정선아가 'Never Enough'를 부르며 마무리 했다. 정선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재미동포이기도 해 생생한 경험담도 이어져 더욱 박수를 받았다. 이어 정선아와 하모니이즈가 '아름다운 나라'를 합창하며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 공연의 대미를 장식했다.

다채로운 이야기와 볼거리가 담긴 '2024 코리안 페스티벌'은 추후 KBS WORLD 채널을 통해서도 전 세계 142개국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우즈베키스탄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

2024. 6. 13. (목)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타슈켄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

우즈베키스탄서 동포 간담회... “재외동포청 통해 동포 활약에 버팀목 될 것”

윤석열 대통령-카자흐스탄 대통령, 핵심광물 협력 합의... ‘북한 비핵화’ 성명

우즈베키스탄을 지난 13일(현지시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우리 동포들은 우즈베키스탄의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펼치면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우의를 이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는 과거와는 전략적 가치가 많이 달라졌다”며 “정부는 동

포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파트너십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발표한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언급하면서 “내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우즈베키스탄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핵심 협력 분야인 인프라, 에너지,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개발 협력, 보건의료, 환경,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우즈베키스탄과 손을 잡고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감으로써 동포 여러분이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동포 여러분이 현지 사회에서 더욱 성공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의 한 호텔에서 열린 고려인 동포·재외국민 초청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튼튼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동포사회와 본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동포들이 현지 사회에서 더욱 성공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동포들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강창석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장은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인 공동체가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어울려 발전하는 특별한 곳”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현지에서도 더욱 모범적인 한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만큼, 이곳 동포들은 저마다 민간 외교관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빅토르 고려문화협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이번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차세대 고려인 동포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김은정 타슈켄트 한국유치원 원장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어린이가 되자는 원훈 아래 한국어 교육과 인성 교육에 힘쓰고 있다”면서 “어린이들이 우리말을 익히고 쓰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동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순방의 성공적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인이 실�크로드에서 중추적 역할을 펼칠 바란다”고 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타슈켄트 거리 80여 곳의 전광판에 윤 대통령의 사진과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 국민의 영원한 우정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도시 곳곳의 가로등마다 태극기를 걸어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을 크게 환영했다.

우즈베키스탄 방문에 앞서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라고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12일(현지시간) 공급망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4차 산업 시대에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핵심 희소광물의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수도 아스타나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 직후 공동언론 발표와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지지도 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양측은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

# 타국서 인종차별·정체성 혼란 극복 ‘희망의 상징’ 입양한인들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서 주목...입양인단체서 활동하고 뿌리 찾기 나서



재외동포청 주최로 5월 21~2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 '2024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6.25** 전쟁 이후 많은 전쟁고아가 발생하자 정부는 1954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해외 입양 사업을 시작했고, 어느덧 70년이 됐다.

2022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우리나라 아동의 수는 16만8천427명이지만, 통계에서 누락된 인원을 합치면 20만명을 넘는다는 게 입양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0여만명의 해외입양인은 태어나자마자 영문도 모르고 낯선 타국으로 건너가 인종 차별을 겪고, 커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삶을 살아내면서 희망의 상징이 된 입양인들

이 많다.

재외동포청이 5월 21~24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개최한 '2024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를 계기로 한인 입양인들의 스토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등으로 건너간 입양인들의 성공 사례는 종종 언론 등에 소개된다. 이러한 사연들은 어떤 입양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모국 방문을 결심하게 하는 등 뿌리 찾기에 나서는 동기가 된다.

## 플뢰르 펠르랭 전 장관, 마이클 시글 미국 육군 병참학교 교장

서울의 한 판자촌에서 발견돼 프랑스로 입양된 플뢰르 펠르랭 코렐리아 캐피탈 대표는 프랑스 중소기업·디지털 담당 장관, 문화부 장관 등을 지냈



1



2

고, 2016년 공직에서 물러난 뒤 사업가로 변신했다. 2022년에는 영예로운 삶을 산 사람에게 주어지는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았다.

2022년 10월 준장으로 승진한 마이클 시글 미국 육군 병참학교 교장 겸 병참 장군도 입양인이다. 당시 세 번째로 별을 단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지면서 아시아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희망으로 떠올랐다.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돼 요리사로 성공한 한인 크리스틴 키시는 지난해 미국의 인기 요리 프로그램 ‘톱 셰프’ 시즌 21의 진행자로 발탁됐다.

이 밖에도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 수석연구원 출신 스티브 모리슨 한국입양홍보회장,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인정하는 계관시인에 한인 최초로 지명된 헤릭 리 프레즈노 시티대 교수, 한인 최초로 매사추세츠주 하원의원을 지낸 마리아 로빈슨,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코리아 단일팀의 수비수로 활약한 여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박윤정 선수 등이 있다.

입양인이라는 정체성이 더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이들은 한국뿌리협회(프랑스), 한국독일입양인협회(KADeV), 코리아 클루벤(덴마크) 등 세계한인입양인협회(IKAA) 소속 입양인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열어 입양인과 그 가족을 연결하고, 국제 리더십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입양인 커뮤니티의 성장을 돕는데 힘쓰고 있다.

일부 입양인은 직접 모국을 방문해 입양기관에 입양 당시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자신이 어릴 적 머물렀던 보육원 등을 찾아 뿌리 찾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작은 정보라도 얻고자 한다.

정부가 2020년부터 34개 재외공관을 통해 무연고 해외 입양 한인의 유전자 채취한 뒤 한국 실종자 가족과 대조하는 유전자 검사제도를 이용하는

입양인들도 늘고 있다. 이 제도로 친가족을 찾은 사례는 5건이다. 지난해 9월 이후 현재까지 통계만 보면 13개 재외공관에서 29건의 유전자 검사가 이뤄졌다.

### “해외입양인 권익 신장 지원 사업 시행할 것”

이런 상황에서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 실현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내건 재외동포청은 각국 입양 동포 및 단체 간 연결을 강화해 한국과 입양 동포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에는 14명의 입양 동포단체장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역별 그룹 토의에서 해외입양인 간 교류 협력 활성화, 입양 동포 자녀의 모국 연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들은 또 외국 교과서에 한국의 정치 경제 발전을 수록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한 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국격에 걸맞은 동포 보호 및 지원 강화 차원에서 해외입양인 네트워크 구축 및 권익 신장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며 “입양 동포 및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1. 지난 21일 ‘2024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개막식에서 참가자들에게 재외동포청의 한국 발전상 알리기 사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이기철 청장.
2. 플리르 펠르랭 코렐리아 캐피탈 대표(왼쪽), 마이클 시글 미국 육군 병참학교 교장

## 81년만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정태식씨 “재외동포청에 감사”

1992년부터 영주귀국 시작, 5천여명 사할린 동포 고국에 정착

지난 5월 8일 경기도 안산시의 고향마을에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정태식씨(92). 그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81년만에 돌아온 한국에서의 생활은 매일매일이 기쁨이자 행복”이라면서 “고국에서 아침마다 눈을 떠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할린 동포들이 한국에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씨는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1943년 13살의 나이에 일제에 강제징용 당한 아버지를 따라 사할린으로 떠났다.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정씨는 81년만에 아들 정정우씨(65), 며느리 정영희씨(65)와 함께 고국 땅을 밟았다.

정씨는 특히 지난 6월 5일 재외동포청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 기념 재외동포와의 대화 시간에 가족과 함께 화상으로 참여해 의미가 컸다. 정 씨는 이날 자신이 작사한 ‘사할린 아리랑’을 직접 불러 감동을 주기도 했다.

정씨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간 동포와 그 후손을 잊지않고 끝까지 돌아올 수 있게 챙겨준 재외동포청에 감사하다”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아버지는 끝내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셨지만, 자식들에게 고국을 잊지 말고 살라며 한국어, 한국 문화와 역사 등을 공부하라고 말씀하셨다”며 “한국말을 할 수 있게된 것은 아버지 덕분”이라고 감사함을 내비쳤다.

정씨는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사업을 지원하고,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애썼다. 탄광 등에서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정태식(가운데)씨와 그의 아들 정정우(오른쪽), 며느리 정영희 씨.

일하던 정씨는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후손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이산가족협회에 들어가 영주귀국 업무를 지원하는 등 동포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평생을 헌신했다.

정씨의 노력으로 사할린 동포들의 존재가 알려져 지난 1992년부터 영주귀국 사업이 시작, 5천여 명의 동포가 고국에 정착했다. 다만, 정씨는 자녀들을 러시아에 두고 떠날 수 없다는 신념 하에 영주귀국이 시작되고 30여 년이 지난 이제야 모국으로 돌아왔다. 정씨는 “영주귀국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겠다고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재외동포청 청년인턴십으로 취업 뚫었죠…해외 실무경험이 최대 장점”

CJ대한통운 입사 모션웅 매니저, 印 한상기업 AA스튜디오서 인턴

재외동포청 청년인턴십이 ‘취업 보증수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인도 전문가로 CJ대한통운에 입사한 모션웅 CJ-Darci로직 스틱스 매니저(32)가 대표 사례다.

모 매니저는 지난 5월 9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재외동포청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도 한상기업 AA스튜디오컨설팅에서 1년간 근무하며 인도 전문가로 성장하게 됐다”며 “인도 직원들과 일하며 정전이나 교통체증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대처와 현지 업무 스타일 등을 배우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2017년 재외동포청 전신인 재외동포재단 청년인턴십에 참여해 인도에 가게 됐다. AA스튜디오컨설팅에서 관리업무를 담당했다. AA스튜디오컨설팅은 인도 한상 김창현 건축가가 운영하고 있는 건축·인테리어 업체다.

모 매니저는 “당시 인도에 인프라 바람이 불면서 건축 수요가 높았고,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현장관리·물류운영 업무를 수행했다”며 “현장 소통 능력 뿐 아니라 인도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내심과 긍정적인 태도 또한 배웠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 인턴의 가장 큰 장점은 해외 실무 경험”이라며 “인턴십을 통해 내게 맞는 직무를 발견하게됐고, 이는 자연스럽게 취업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모 매니저는 인도 AA스튜디오 인턴을 마치고, 2018년 CJ대한통운에 입사했다. 인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2022년 말 인도 주재원에 선발됐다. 그가 일하고 있는 CJ-Darcl로지스틱스는 CJ대한



통운과 인도 물류회사 Darcl의 합작회사다. 육상·해상·항공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문시연 세계한류학회장 “한류 확산서 타문화 교류 중요” ‘한류 인 모션’ 주제로 10월 24~25일 LG사이언스파크서 학술대회

“한류가 다른 문화를 만나 어떻게 자리 잡는지 산업과 문화·사회적인 측면을 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류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다른 문화와의 교류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문시연(59) 세계한류학회장은 6월 7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기자와 만나 오는 10월 24~25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서 개최하는 ‘제11회 세계한류학술대회’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문 회장은 “그간 한류를 이야기할 때 수익 창출 등 산업적·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이제는 상호 교류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대회 주제를 ‘한류 인 모션’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문화나 미국 할리우드의 영향으로 타국에서 유사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한류도 그런 모델이 돼야 한다”며 “카자흐스탄 쿠팡, 인도네시아 인디팝 등 K팝의 영향을 받은 문화가 생기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각국에서 활동하는 한류 연구 학자, 문화예술인, 문화산업계 인사 등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류의 움직임, 한류 속 여성 서사, 미국과 유럽 내 한류 팬들의 교류 등을 소주제로 한 10개



6월 7일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 문시연 세계한류학회장.

세션을 구성할 계획이다.

그는 “대회를 계기로 방한하는 한류 전문가들이 한국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필드 트립’도 계획하고 있다”며 “발전한 한국 문화와 산업을 생생하게 알릴 기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장]**

# 한국계 첫 미국 상원의원에 성큼 다가선 앤디김 뉴저지주 민주 후보로 확정

## “놀라운 승리 결과 감사...정치 영원히 바꾼 풀뿌리운동 만들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6월 4일(현지시간) 뉴저지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뉴저지주 예비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시민단체 활동가 로런스 햄, 노동운동 지도자 파트리샤 캠포스-메디나 후보를 제치고 오는 11월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다고 AP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개표 초반 로이터 통신은 선거조사기관 에디슨 리서치를 인용, 김 후보가 80.5%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현역 의원인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이 뉴저지주 사업가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후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오는 11월5일 본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된다. 김 의원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 3선 고지에 오른 한국계 정치인이다.

### 민주 우세지역이어서 본선도 일단 유리

김 의원은 투표 종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놀라운 승리 결과에 감사드린다”며 “우리는 지난 8개월 동안 놀라운 성과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는 불공정한 투표용지 관행을 무너뜨리고 뉴저지 정치를 영원히 바꿔놓는 놀랍도록 강력한 풀뿌리 운동을 만들어냈다”며 “이제 변화를 위한 우리의 운동을 이어갈 준비가 됐다”라고 기대했다.

이날 선거는 유력 경쟁 후보였던 태미 머피 후보가 자진사퇴한 상황에서 치러져 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무난하게 선출될 것으로 일찌감치 예견돼왔다. 미 연방선거위원회(FEC) 공시에 따르면 캠포스-메디나 후보의 선거 모금액은 43만달러, 햄 후보의 모금액은 25만달러로, 김 의원(787만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부터 지역별 당 지도부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투표용지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일렬로 모아 놓는 이른바 ‘카운티 라인 시스템’을 폐지한 것도 김 의원의 우위에 무게를 더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카운티 라인 투표용지가 비민주적이고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 법원은 카운티 라인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 무소속 출마 강행 현역의원이 ‘변수’

앞서 김 의원의 유력 경쟁 후보였던 태미 머피 후보는 지역별 당 지도부의 지지를 대거 얻어냈지만, 남편인 필 머피 주지사의 후광 덕이라는 논란 속에 지지율 정체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지





4

난 3월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이날 예비선거 승리로 김 의원은 오는 11월 본선에서 승리해 연방 상원에 입성할 첫 관문을 넘었다.

뉴저지주는 1972년 이후 50여년 간 치러진 상원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내리 의석을 석권해왔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본선 대결에서도 유리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메넨데스 현 의원이 11월 본선에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표 일부를 잠식할 것으로 예상돼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메넨데스 의원은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다. 지난해 기소 후 당내에서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 등 재판이 현재 한 달째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중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 NYT, 앤디 김에 “당선 가장 유력”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의 정치 이력과 승부사로서 기질을 집중 조명했다.

NYT는 27일(현지시간) ‘아무도 앤디 김이 오는 것을 못 봤다.

그게 바로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지점이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앤디 김은 로버트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다”면서 “누구에게서도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전략”이라고 했다.

뉴저지주 민주당의 독특한 경선 시스템 탓에 지역 당 지도부에 ‘출마 신고’를 먼저 하고 그들의 지지를 구하는 게 기존 선거 관례였는데, 이런 기득권을 혁파하는 전략으로 오히려 승기를 잡았다는 것이다. [\[참\]](#)

이지현 연합뉴스 뉴욕 특파원

1. 미국 하원의 앤디 김 의원이 지난해 7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하원 건물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와 정전의 날 기념 리셉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2. 미국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지난 2022년 12월 6일(현지시간) 열린 ‘김치 데이’ 행사에서 앤디 김 하원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3. 앤디 김 미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2022년 11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 호텔에서 한인유권자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가 개최한 한반도 평화 콘퍼런스에서 당선 소감 등을 밝히고 있다.
4. 앤디 김 의원이 지난 3월 뉴저지주 파라머스에서 열린 버겐 카운티 민주당 전당대회장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한국계 디자이너 2명, 미국 토니상 의상상·조명상 쾌거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린다 조 & ‘아웃사이더즈’ 조명 총괄 김하나

한국계 디자이너 린다 조와 김하나(미국명 하나 수연 김)가 미국 3대 대중문화 예술상 중 하나인 토니상에서 의상상과 조명상을 받았다.

공연기획사 오디컴퍼니는 16일(현지시간) 뉴욕 링컨 센터 데이비드 H 코흐 시어터에서 열린 제77회 토니어워즈(Tony Awards)에서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의 한국계 무대의상 디자이너 린다 조가 뮤지컬 부문 ‘의상 디자인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또 뮤지컬 ‘아웃사이더즈’에서 조명 디자인을 담당한 김하나는 뮤지컬 부문 ‘조명 디자인상’을 받았다.

한국인이 단독 제작자로 나선 뮤지컬이 토니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대한 개츠비’는 국내 제작사 오디컴퍼니의 신춘수 대표가 단독으로 리드 프로듀서를 맡아 현지 제작진과 함께 무대에 올린 뮤지컬이다.

2020년 아카데미상(오스카)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과 2022년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한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이어 연극·뮤지컬계 최고상인 토니상까지 미국 3대 대중문화 예술상을 한국인 제작 콘텐츠가 모두 섭렵한 셈이다.



한국계 디자이너 린다 조(왼쪽)와 김하나(오른쪽)·미국명 하나 수연 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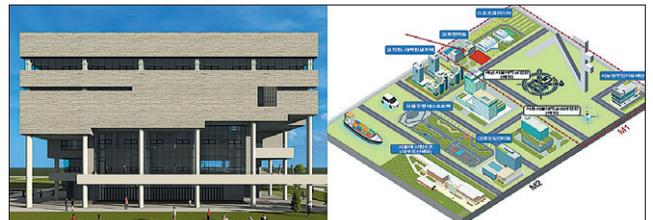
##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동포 인재 육성’ 교육문화센터 들어선다 재외동포협력센터 “2026년 완공…한국어·역사·문화 연수에 활용”

700만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차세대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들어선다.

재외동포청 산하의 재외동포협력센터(센터장 김영근)는 오는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이 건물에는 자료실, 문서고, 전시실, 수장고, 강의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동포 차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역사·문화 연수를 비롯해 재외동포와 관련된 유물 전시, 디지털 아카이브와 세미나 및 워크숍 장소 등으로 쓰이게 된다. 특히 역사유물전시관을 활용해 내국인을 상대로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외동포 독립운동사와 이주사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재외동포 분야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실도 운영한다.

교육문화센터는 올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상반기 중에



2026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들어서는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조감도.

준공될 예정이다. 총사업비 299억원 가운데 252억원은 국고 지원을 받으며 나머지 47억원은 동포사회 모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고려인 초청연수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발맞춰 차세대 고려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 재미 한국과학자, 에너지 효율 높은 '원자력 전지' 개발

‘인피니티 파워’ CEO 권재완 박사…“혁신적인 에너지 저장 기술”

재미 한국 과학자가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원자력 전지’(nuclear battery)를 개발했다. 재미 과학자 권재완 박사가 설립한 ‘인피니티 파워’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원자력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인피니티 파워는 미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차세대 원자력 전지의 상용화를 추진 중인 회사다. 인피니티 파워는 이번에 개발한 원자력 전지가 에너지 전환 효율이 10% 미만인 기존 기술을 크게 뛰어넘어 60%가 넘는 높은 에너지 전환 효율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CEO인 권 박사는 과거 17년 동안 미주리주립대의 정교수로 재직하며 2009년 1센트짜리 동전 크기의 원자력(핵) 전지를 발명해 주목받은 바 있다.

권 박사는 “이번 성과를 통해 인피니티 파워는 차세대 원자력 전지의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우리의 목표는 성공적인 제품 출시를 통해 혁신적인 원자력 에너지 저장 기술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피니티 파워가 개발한 원자력 전지(nuclear battery)

## 한인 2세 이세범, 호주선발전 배영 200m 파리올림픽 출전

주 종목 개인혼영 400m에서도 호주 대표 선발을 노려

한인 2세 이세범(23)이 도쿄에 이어 파리에서도 호주 대표로 올림픽 무대에 선다. 이세범은 14일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호주 대표 선발전 남자 배영 200m 결승에서 1분57초02로 2위에 올랐다.

1분56초22에 터치패드를 찍은 브래들리 우드워드에게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이세범은 이 종목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고 2위를 차지해 파리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이번 대회 전까지 이세범의 배영 200m 개인 최고 기록은 1분58초28이었다. 이날 이세범은 개인 최고 기록을 1초26이나 줄였다. 열매는 달콤했다.

파리 올림픽 수영 경영에서는 같은 종목에 나라별로 최대 2명



만 출전할 수 있다. ‘수영 강국’ 호주는 올림픽 기준기록 1분57초50보다 빠른 1분57초28을 ‘대표 선발 기준기록’으로 제시했다. 이세범은 호주 기준기록을 통과하면서 2위에 올라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3위 조슈아 에드워즈-스미스도 1분57초10으로 호주 기준기록을 통과했지만, 이세범에게 0.08초 차로 밀려 파리 올림픽행 출전권을 놓쳤다.

이세범은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남자 개인혼영 400m에만 출전해 16위를 했다. 이번에는 배영 200m 출전권을 확보하고, 주 종목 개인혼영 400m에서도 호주 대표 선발을 노린다.

## 재외동포청장, 인천보훈병원 찾아 국가유공자 위로 “국가유공자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만들어온 영웅”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19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 보훈병원(병원장 김춘동)을 찾아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 등을 위로 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 청장은 재활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번영해온 것은 여러분들과 같은 애국자의 희생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특히 과거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6·25전쟁 참전용사에 대해 각별한 존경과 애정을 가져왔던 관계로 오늘 국군 참전용사 등을 만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쾌유를 위해 계속 힘써달라”고 부탁했다.

이 청장의 이번 방문은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국가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들을 위로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 보훈대상자 8천600여 명의 보훈급여금



6·25전쟁 시 부상을 당했던 정인화(93) 참전용사 어르신이 인천보훈병원을 방문한 이기철 청장에게 귀 뒤의 총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급,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등 다양한 보훈 업무를 재외공관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범국민 환경보호 캠페인 ‘바이바이 플라스틱(Bye Bye Plastic) 챌린지’에 동참하기로 했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는 환경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실천 릴레이 캠페인으로 지난해 8월 환경부 한화진 장관이 처음 시작해 공공기관, 기업·단체, 국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챌린지는 참여자가 1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등 탈(脫)플라스틱 실천을 약속하면서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이 청장은 “이번 챌린지 참여로 지구와 환경을 지키는 탈 플라스틱 실천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재외동포청도 700만 재외동포들과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청 출범일인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인 만큼 ‘깨끗한 환경, 건강한 재외동포’ 만들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재외동포청 “전북·전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신청하세요”

8월31일까지 ‘한상넷’ 접수…기업전시회 부스·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신청도 받아

재외동포청은 오는 10월 22~24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사진)를 앞두고 6월 5일부터 참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8월31일까지 한상넷 홈페이지(www.hansang.net)에서 할 수 있다. 참가자는 국내 및 재외동포 바이어와 셀러, 참관객으로 구분한다. 참가자 신청과 함께 기업전시회 부스와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신청도 받는다. 일반인의 참가는 무료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6월 5일 재외동포청 설립이후 국내에서 여는 첫 행사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유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는 기업전시회,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 스타트업 경연대회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과 리딩 CEO 포럼, 영비즈니스리더 포럼, 벤처캐피탈(VC) 투자포럼 등 최근 경제이슈를 반영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청년 창업경진대회, 해외 인턴십 설명회, 전북지역 문화·관광·산업시찰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지난해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려 국내 및 재외동포 기업 31개국 7천 825명이 참가했고, 500개 전시부스 설치, 1만7천227건의 투자상담, 계약체결 예상금액 5억 7천260만 달러 등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다.

## 재외동포청-경인교대, 재외동포 정체성 교육 강화 MOU

이기철 청장, 미래 선생님에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 교육’ 첫 진행

재외동포청이 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김창원)와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5월 28일 경인교대에서 이기철 청장과 김창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두 기관은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함께 재외동포에 대한 내국민 인식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재외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 청장과 김 총장은 이날 차세대 동포들에게 뿌리인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발전한 자랑스러운 국가라는 사실을 알려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차세대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함양과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위해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상 교육과 확산을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이기철(오른쪽) 재외동포청청장과 김창원(왼쪽) 경인교육대총장

위한 협력과 함께 해외 한글학교 운영에 따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모델 개발 등 차세대 동포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 아시아 한인회 · 한상, 10~13일 말레이서 ‘교류 확대’ 논의

아시아 각국의 한인회 전 · 현직 회장과 한상(韓商) 110여명이 모여 교류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렸다.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 아시아한상연합회(아총련 · 회장 윤희)는 6월10~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단합 대회를 가졌다. 아시아 한인회의 발전을 위한 유대강화, 교류와 소통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주재국 내에서의 한인 지위 향상 등을 논의했다. 이번 대회에는 인도,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대만, 방글라데시 등 19개국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참석했다. 대회 기간 각 지역 한인회의 우수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아시아 한인사회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해 아총련 활동 내역과 함께 모국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한상대회 등 올해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도 발표했다. 아총련은 아시아 지역 22개국 68개 한인회를 대표하는 단체로 매년 각 국가를 돌며 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대회 사진.

### 재일동포 어린이들 8월초 한국서 잼버리...“뿌리의식 함양”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김이중)은 오는 8월 4일부터 나흘간 재일동포 어린이들이 모국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뿌리의식을 함양하는 ‘2024 재일동포 어린이 잼버리’를 개최한다. 일본 전역에서 초등학교 5~6학년 동포 학생 230여명이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방한 기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 머물며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둘러보고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한다. 또 재일동포 역사에 대한 강연을 듣고 국내 초등생과의 교류 활동에 나선다. 김이중 단장은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동포 3~4세는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며 “이들에게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귀속감을 높여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재일동포청이 후원한다. 참가 희망자는 민단 각 지부 · 지방본부나 홈페이지(<http://mindan.org>)를 통해 6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夏が来た!! 2024 行くぞ韓国!!**  
**オリジンバザー**  
 母国での夏思い出  
 仲間との夏思い出

日 程: 2024年8月4日(日)~8月7日(水)  
 場 所: 韓国ソウル (寄居: オリピックパークチル)  
 参加対象: 韓国をルーツに持ち、日本の学校に通う小学校5~6年生  
 ※参加対象: 参加数などの詳細はホーム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参加費: ¥95,000- (別添: お小遣いとして¥10,000-)  
 席 庫: 300名  
 申請期間: 5月17日(金)~6月25日(火)  
 申 請 先: 在住まいの民間支部または地方本部へ  
 問い合わせ: 民間中央文書局/mail:bunkyo@mindan.org  
 (Tel.03-3454-4615)受付時間9:00~17:00

主催: 在日本大韓民国国民団 後援: 在外民間庁

**제3회 장한상수상자 참여성공스토리 창작물(생성물 시 감상문, 웹툰, 쇼츠영상) 공모전**

공모기간: 2024년 6월 10일(월) ~ 7월 12일(목) 도착 마감(영사)  
 공모대상: 초등부(4~5학년) / 중등부(1~3학년)  
 공모장소: UCC센터

**심사 및 시상**

상종류	초등부(4~5학년)		중등부(1~3학년)		UCCE
	1등	2등	1등	2등	
시	1명	2명	1명	2명	1명
웹툰	1명	2명	1명	2명	1명
쇼츠	1명	2명	1명	2명	1명
합계	3명	4명	3명	4명	3명

공모처: [www.changpogo.kr](http://www.changpogo.kr) / [www.changpogo.net](http://www.changpogo.net)  
 문의처: 111 김사: 자기 기획 및 인스타그램 @changpogo / 211 김사: 01-550-5476  
 후원처: 159(1)4 관내 학교를 방문하고 1457 장한상수상자협회의회장님 사무국 001-550-5476 / 710-9788-3797

### 장보고글로벌재단, 청소년 대상 ‘한상 성공스토리’ 창작물 공모

장보고글로벌재단(이사장 김덕홍)은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21세기 장보고 대사’로 선정된 한상(韓商)들의 성공 스토리에 대한 감상문을 공모한다. 재단은 2016년부터 매년 해외에서 한민족 경제 영토 및 한류 확산에 앞장선 한상을 ‘21세기 장보고 대사’로 선정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전남 완도군과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청소년들에게 해외 진출에 대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어 글로벌 인재로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장보고 한상 명예의 전당 홈페이지 ([www.changpogo.kr](http://www.changpogo.kr))에 게재된 수상자의 창업 성공담을 읽고 감상문을 제출하면 된다. 4학년 이상 초등학생과 중학생만 참가할 수 있다. 마감은 7월 12일까지다. 재단은 감상문을 웹툰이나 쇼츠 영상으로 제작한 창작물도 공모한다. 웹툰의 경우 채색 원고와 표지를 제출하면 되며, 쇼츠 영상 분량은 60초 이내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교육부장관상을 비롯해 국회 교육위원장상,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상, 재단 이사장상, 장한상수상자협의회회장상 등을 수여한다.

# 재외동포 위해 애쓰는 ‘동포청’에 깊은 감사 1500개 한글학교에 실질적 도움 되도록 지원 기대

우선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축하드리며 재외동포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기철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난 1년간 다양한 정책상의 변화와 추가적인 노력의 흔적이 보인다. 무엇보다도 한글학교 운영비가 2023년 141억 원에서 2024년 177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이를 통해 한글학교 교사 사기 진작, 한글학교 기능 강화 및 교육 환경 개선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교과서와 교사 지도서 등 온라인 제공 및 한글학교 교재의 적기 지원도 기대된다

지난 4월 재외동포청을 방문해 청장님과 대담에서 해결할 수 많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지만 많은 재외동포들이 기대하고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 드렸다.

우선 전 세계 1500여 개의 한글학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학교 규모가 작고 영세한 학교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방안이 재고되어 연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해 줬으면 한다.

그리고 모든 한글학교가 이해할 수 있는 공평하고 정확한 운영 지원금 산정 방식이 도입돼 서로 간의 오해 여지가 없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한글 학교들을 분석해 기준점을 세워야 한다. 또 재외동포청 내 한글학교 지원 관련 부서인 교류협력국 동포교육문화지원과의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세종학당재단이나 해외한국학교보다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도 정반대의 실정에 놓여 있다.

한편 유럽한글학교협의회에서는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별 한국 발전상 알리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난 5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한글학교협의회 교사 연수에서 한국 발전상 교과서 수록 방안을 논의하면서 유럽에서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유럽 국가별 TF를 구성했다. 한국 관련 기술 내용을 찾는 포스터를 제작해 한글학교를 비롯한 전체 한인 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장석 유럽한글학교협의회장

재외동포청은 이런 사업을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 재외 동포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안을 구상해 주기 바란다. 대륙별 또는 국가별로 추진하는 것 보다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동시에 진행한다면 사업의 선전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다.

또한 해외 입양 동포들의 극적 회복 절차 간소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글학교에서 열심히 자녀와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입양 동포들을 보면서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 살면서 겪는 혼란도 줄여주고 특히 이들은 세계 각 국가의 언어와 시스템을 몸소 익혀온 한국을 위한 미래의 인재가 될 것이다. 한국의 세계 최저 출산율을 감안하면 즉시 시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복수국적 취득을 위한 절차와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데 이런 제도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70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을 잘 수행해 소외된 재외동포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장**

※ 기고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재외동포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 연수(7월 15일~8월 12일)
-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7월 22일~27일) / 사전 온라인 연수(7월 1일~19일)
- 고려인 재외동포 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한국이해과정' 운영(7월 22일~8월 23일)
- 원폭피해자 위령제(8월 5일)

### 재외동포청 공지

## 재외동포청, '2024년 재외동포 문학상' 공모...6월30일까지

시·단편소설·수필과 수기 등 3부문 진행...총 상금 3천만원

재외동포청은 6월 30일까지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2024년 재외동포 문학상'을 공모한다. 올해 26회째를 맞이한 이 문학상은 한글문학 창작활동 장려를 통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유대감 및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공모는 시, 단편소설, 수필·수기 등 3부문을 진행한다. 공모 신청은 코리안넷(korean.net)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응모 작품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재외동포로서 거주국 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7년 이상 장기체류한 사람은 신예·기성작가에 관계없이 누구나 미발표 한글 창작물로 응모할 수 있다. 단, 역대 '재외동포 문학상' 대상 수상자는 동일 부문에 응모할 수 없다.

시와 단편소설 주제는 자유이고, 출품 가능한 편수는 각 3~5편(시), 1~3편(단편소설)이다. 수필과 수기는 거주국 내 사회에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느낀 경험이나 한국 발전상 알리기 등 현지 사회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 이민 및 정착 과정 중 겪은 본인 또는 가족 친지의 체험을 쓰면 된다.

각 부문에서 대상(상금 500만원)과 우수상(상금 250만원), 가작(상금 100만원)을 시상하여 수상자는 오는 9월 중 재외동포청(oka.go.kr)·코리안넷(korean.net)·소통24(sotong.go.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작품집 '2024 재외동포 문학의 창'에 수록해 배포할 예정이다.



2023 재외동포 문학의 창 표지

한편, 지난해에는 35개국 279명 707편이 접수됐으며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등 14개국에서 수상자가 나왔다.

이기철 청장은 "재외동포 문학상은 지난 26년간 동포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재외동포가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수상자들에게 모국 문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차세대 동포들에게는 정체성 함양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6월 재외동포청장 동정

- 5일: 개청 1주년 '재외동포와의 대화'(재외동포청)
- 7일: 리비아 외교장관 면담(재외동포청)
- 11일: 대양주한인총연합회 정기총회 영상 축사(재외동포청)
- 13일: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화상회의)
- 17일: 제천시장 면담(재외동포청)
- 19일: 호국보훈의 달 위문행사(인천보훈병원)
- 24일: 유엔공공행정포럼 참석(인천 송도)
- 28일: 바이바이플라스틱 챌린지 참여



#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단체,  
재단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민원



재외동포  
지원 사업



단체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지원



재외동포  
뉴스





전 세계  
재외동포의 대변자



@overseas\_koreans\_agency



facebook.com/oka202365



@OKAKOREA